

한·베트남 경제 교류 및 FTA 전망

한국 투자 급속히 증가...새로운 경제 파트너로 부상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방한한 응웬 푸 쩡(Nguyen Phu Trong)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베트남 FTA를 체결할 때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교역, 투자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두 나라의 경제통상관계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14년 9월말 기준 한국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3,983개의 투자 프로젝트가 진행됐거나 진행 중이고, 누적 투자금액 면에서 일본에 이은 제2위 투자국이다.

산업별 외국인투자를 살펴보면 ①제조업(9,288건, 1,331억 달러), ②부동산경영(434건, 468억 달러), ③호텔 외식서비스(357건, 110억 달러), ④건설(1,124건, 109억 달러) 등의 순서다.

한국 투자, 섬유·신발에서 전자제품으로 확대

베트남의 대외교역 동향은 2013년 이전은 적자를 기록하다 2013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과의 교역은 매년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해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2014년도 7월말 기준 베트남의 대(對)한국 수출은 36억 달러로, 미국(158억 달러), 중국(85.6억 달러), 일본(85.2억 달러)에 이은 4위다.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22억 달러로, 중국(236억 달러)에 이은 2위다.

2014년도(9월 기준)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직물제품(155억 달러), 신발류(74억 달러)가 전통적인 주요 수출품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2012년 이후 각종 전자기 및 부품(170억 달러), 전기전자 제품·부품(74억 달러)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수출품목들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뤄진 분야와 일치한다. 양국 수교 이후 오랫동안 세아상역, 한세실업, 한솔섬유, 창신아이엔씨, 태광실업, 화승 등 많은 한국 기업이 섬유와 신발 분야에 투자를 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가 베트남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체결되면 수출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품목은 ①의류(11억 달러), ②신발(3억 달러), ③무선통신기기(2억 달러), ④목재류(2억 달러) 등의 순서다. 한국과의 FTA를 통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수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는 농수산물이다. 일례로 현재 베트남 최대의 수출 작물은 커피인데(2014년도 9월 기준 28억 달러), 올해 한국의 커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10월 22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생두와 원두 등 커피 수입중량이 9만9,3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는 베트남으로부터의 수입이 2만3,686톤으로 가장 컸다. 지난 5월부터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CJ그룹은 베트남 닌투언(Ninh Thuan)성에서 농업 관련 시설을 개선하고 농산물 생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월 2일 방한한 응웬 푸 쩡 베트남 서기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베트남 FTA의 연내 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 전 과정을 선진화하는 '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산 작물을 파종해 베트남 농가는 수익을 올리고 CJ는 신뢰할 만한 해외 농산물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다. 양국간 FTA 체결은 이러한 농수산물의 교역 및 투자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

베트남 주요 품목별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①기계·플랜트 및 부품(161억 달러), ②전자제품 및 컴퓨터(129억 달러), ③의류 원단 (69억 달러), ④유류제품 (61억 달러) 등의 순서다. 2014년도 8월말 기준으로, 베트남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①반도체(20억 달러), ②무선통신기기(11억 달러), ③합성수지(7억 달러), ④편직물(6억 달러) 등의 순서다. 베트남은 산업재를 비롯한 많은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양국간 FTA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대베트남 수출 증대에도 호재가 될 것이다.

인구 9300만...생산지에서 소비시장으로 부상

베트남은 종래 대외 수출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제조업체들의 생산 및 수출 전진기지로서 각광을 받아 왔지만, 향후 미래시장으로서도 그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구 9300만 명인 베트남의 소비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베트남 전국 1인당 소비 지출액 증가율은 약 40%에 달하고 있고, 도시의 소비증가율은 이를 상회함을 감안하면, 향후 주

요 도시의 소비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0년 이상 한류의 영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중국제품에 대한 팽배한 불신은 한국 소비재의 베트남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환경은 양국간 FTA를 통한 한국의 수출 증대를 낙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한편 양국간 FTA는 상품 교역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업종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베트남은 국제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서비스업종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나, 아직 개방되지 않은 분야가 많을 뿐만 아니라, 개방된 분야라 할지라도 실제로 투자허가를 받는 데에는 행정 절차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미개방 분야와 행정상의 난관은 FTA 체결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신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통상 당국과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과의 FTA 협상에서도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에 도움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수료 인상이 쉽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해외 진출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한국 제조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은 금융회사가 진출하는 데에 최적의 시장이라 할 것이다.☺

대(對)베트남 국가별 외국인투자

순위	1988년 1월 1일~2014년 9월 20일 기준 누계			2014년 1월 1일~2014년 9월 20일		
	건수	투자금액	실행금액	신규 건수	신규 투자금액	증자금액
일본	2,410	36,310	11,696	228	830	610
한국	3,983	33,430	10,289	374	2,573	985
싱가포르	1,310	31,033	8,180	65	640	436
대만	2,334	28,019	11,775	51	432	386

(단위: 백만USD) 자료: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